

서호인의 '소설처럼'



그는 왜 없는 사람이 되고자 했는가

-오성인 산문집 '세상에 없는 사람'

살아 있는 사람이라면 세상에 없을 수가 없다. 세상에 없다는 것은 태어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미 태어났다면, 죽어야만 없는 사람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책은 태어나지 않은 자에 대한 이야기인가? 혹은 이미 죽어 없어진 이에 대한 기억인가? 시인 오성인의 산문집 '세상에 없는 사람'은 제목과는 다르게 분명 현재 살아 숨 쉬는 사람을 그린 이야기다. 동시에 그가 어느 순간부터 더는 산 자가 아니게 되었는지, 무슨 이유로 스스로를 유폐시켰는지, 왜 없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기원을 찾는 이야기다. 하여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읽어야만 하는 책이 되었다.

'세상에 없는 사람'은 오성인 시인 일가의 가족사를 담담하게 따라간다. 한국전쟁 당시 시인의 조부는 일련의 사정에 병역을 기피한 범법자가 되고, 그 일은 연좌제라는 이름으로 시인의 가족을 유폐야 했다. 책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시인의 아버지는 진짜 해보고 싶은 일은 시도조차 해보지 못하고 운명에 순응하듯 살아야 했다. 학교에서 넘지시 추천한 의대는 집안 사정에 원서를 쓰지 않기로 했고, 내면의 꿈이었던 그림은 말도 제대로 꺼내지 못했다. 또한 그는 군대마저 연좌제의 벽에 가로막힌다. 의무 경찰이 되려 하였지만 되레 세상은 아버지의 과거를 들먹이며 너희 아버지는 빨갱이이며 하여 너 또한 빨갱이다, 그를 겁박할 뿐이었다.

그는 그저 그날을 거쳐 간, 거치지 않고는 어디도 갈 수 없었던 시인에 불과했다. 그 '거쳐 갔음'이 그를 평생 괴롭혔을 것이다. 그 '거쳐 갔음'을 기록한 시인이 있어 그의 괴로움은 잠시라도 치유되었을까? 아마도 그럴 것이다. 기억하고 되새기는 일은 상처에 바르는 연고와도 같으니.

일종의 다큐멘터리라고 볼 수 있는 이 책은 한 인간의 풍파를 찬찬히 관찰하다 좋은 다큐가 그렇듯 정서적 충격을 한순간에 부러놓는다. 시인의 아버지가 왜 스스로를 세상에 없는 사람으로 취급했는지, 실제이기에 더욱 절절할 수밖에 없는 사연을 우리는 가만히 앉아 읽어야 한다. 그가 민주화운동의 유공자는 아닐 테다. 또한 그는 80년 5월을 통과해 유력 정치인이 되었거나 지역의 유지가 되지도 않은 듯하다. 물론 그는 80년 5월로써 망월동에 묻힌 희생자도 아니며, 80년 5월 이후 태어나 글과 사진으로 그날을 접한 세대도 아니다.

광주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세상에 없는 사람'은 다른 의미로 정겨운 읽기 경험을 제공한다. 페이지마다 등장하는 익숙한 동네 이름은 세대를 막론하고 내가 직접 가보았던 그곳의 기억을 다시 조각하게 한다. 내게는 전남대학교 교정 곳곳이 그랬다. 경영대와 인문대 사이 오르막길 옆 야트막한 언덕을 '레닌의 언덕'이라 불렀던 선배들이 있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어 반갑다. 1970년대 일이나 필자가 대학에 입학한 시기에서 30년 차이가 난다. 지금으로부터는 50년 전이다.

돌아켜보면 그곳에서 지낸 시간이라 해봐야 고작 4년 혹은 6년인데 그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기억은 그곳으로 내 청춘을 자꾸 소환한다. 그렇다면 1980년 학교 앞 정문에서, 도청 앞 분수대에서, 광주 곳곳에서의 시간을 보낸 청춘들은 어떠했는가. 작금의 허튼수작들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다. <시인>

社說

3단체장, 광주공항 무안으로 통합 결단 내야

광주지역 경제단체들이 처음으로 광주 민간·군공항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 이전하자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금까지 광주·전남지역 정치권과 주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거듭된 사안에 대해 경제단체들이 한 목소리를 낸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그만큼 광주지역 경제단체들은 무안국제공항의 활성화가 전남의 발전은 물론 광주지역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의 도약에도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 것이다.

절히 염원해 왔다"며 "하지만 지난 10년간 이전 대상지역 주민의 강력한 반대, 지자체간 갈등,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 등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무안공항은 국내에서 5번째 규모임에도 서남권 관문공항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서 지역민의 94%가 타 지역 공항을 이용하는 탓에 연간 5500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다"고 강조했다.

광주상공회의소, 광주경영자총협회, 광주경제진흥생일자리재단 등 17개 광주지역 경제단체들이 그제 '광주 민간·군공항의 무안 통합이전 촉구'를 위한 지역경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광주 군공항의 무안통합 이전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지역 경제단체들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광주 경제는 무한경쟁 시대 생존을 위해 광주 민간·군공항 통합 이전을 통한 서남권 관문공항 육성을 간

이제 시간이 없다. 대구·경북통합 신공항, 부산기덕도 공항, 전북 새만금 국제공항 개항 등이 예정돼 있어 당장 무안국제공항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지 않으면 영월 무안공항은 적자 공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할 수도 있다. 다음주로 예정된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김산 무안군수 등 3단체장의 회동에 지역민들의 이목이 쏠려있는 이유이다. 부디 3단체장은 소지역주의를 버리고, 대승적 차원의 합의를 도출해주시길 바란다.

빛가람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적극 나서길

나주 빛가람혁신도시에 자리한 공공기관들이 하반기 채용을 앞두고 있다. 오는 31일 일반직(전문직) 공개채용에 들어가는 한국전력거래소를 비롯해 9월까지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채용 일정을 진행한다. 이 가운데 지역인재 채용 규모에 지역 취업준비생들의 관심이 높다.

의 지역인재 채용 계획을 살펴보면 현재는 67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할 계획이다. 한편 계열사 3사의 지역인재 채용 비중은 17개 기관 전체의 88.6%를 차지한다. 반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등은 권고치에 못 미치는 소규모(3명) 인원을 채용하고,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등 9개 기관은 아예 지역인재를 채용하지 않는다. 지난해(141명)보다 8명이 늘었지만 지역민들의 기대치에는 부족하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에 따르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이 올해 149명의 지역인재를 채용한다. 지난해(141명)보다 8명이 늘었지만 지역민들의 기대치에는 부족하다. 정부는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지난 2018년부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 채용제' (혁신도시법)에 따라 일정비율 이상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다. 2018년 18%였던 지역인재 채용 권고치는 2022-2024년 30%로 높아졌다. 올해 빛가람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

빛가람 혁신도시 소재 공공기관들은 정부 권고치를 넘는 지역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취업전선에 뛰어들어 지역의 인재들이 혁신도시 공공기관에서 자신들의 꿈을 열어나갈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의료칼럼

여름철 주의해야 할 질병 'TOP3'



배리 아 한국건강관리협회 가정의학과 진료과장

비브리오패균으로는 비브리오 파라헤몰리티쿠스(장염 비브리오)와 비브리오 콜레라가 있다. 육지에서 비교적 가까운 바다나 갯벌에 분포하는 장염 비브리오패균은 열에 약해 60도에서 15분, 100도에서 수 분 내로 사멸한다. 장염 비브리오는 바닷물에 분포하고 있어 해산 어패류가 오염원이 된다. 고등어, 문어, 오징어, 피조개 등의 표피, 내장, 아가미 등에 부착된 장염 비브리오패균이 조리 과정 중 회에 오염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오염된 장염 비브리오패균이 증식해 직접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또 어패류에 부착된 장염 비브리오패균이 냉장고, 도마, 행주, 칼 및 조리자의 손을 통해 다른 식품을 오염시키고, 이 식품을 섭취함으로써 2차 오염으로 식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활하지 않아 수분이 감소하면 발생할 수 있다. 열사병은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져 발생하는 열을 발산하지 못하는 질환이다. 고열, 의식 변화, 땀이 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콜레라균의 자연 서식지는 해변가나 강 어귀로 균이 증식했을 때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을 섭취하면 1차 감염이 발생한다. 오염된 음식물을 섭취한 지 대개 18-24시간 후에 증상이 나타나는데, 경우에 따라 짧게는 6시간 이내, 길게는 5일 이후에도 증상이 나타난다. 식중독 증상으로 발생하는 설사와 구토에 의한 탈수 치료는 경구나 정맥주사를 통해 수분을 공급해 가능하다. 이러한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대부분 증상이 호전된다.

열사병은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며, 옷이나 불필요한 장치는 제거해야 한다. 의식이 명료하고 구토 증상이 없다면 물이나 전해질 음료를 마시는 것이 좋고, 증상이 지속되거나 탈수가 심하면 정맥 주사를 통한 수액 보충이 필요하다.

또한 여름철 주의해야 할 것이 온열질환이다. 대표적인 온열질환에는 열사병과 열사병이 있다. 열사병은 땀을 많이 흘리고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고온의 환경에서 수분 보충이 원

열사병 환자는 심부 체온을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의식이 없는 경우 즉시 119에 신고하고 질식 위험이 있으면 물을 억지로 먹이지 않아야 하며, 의복 제거 후 서늘한 곳에서 체온을 낮추어야 한다.

또한 여름철 주의해야 할 것이 온열질환이다. 대표적인 온열질환에는 열사병과 열사병이 있다. 열사병은 땀을 많이 흘리고 두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고온의 환경에서 수분 보충이 원

여름철 가장 빈발하는 냉방병은 냉방이 된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가 심해 인체가 잘 적응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것으로 가벼운 감기, 목살, 컨데감 같은 증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냉방병은 감기와 비슷한 증세가 많다. 목이 나른하고 쉽게 피로해지고 두통이 흔하다. 손발이 붓거나 어깨와 팔다리가 무겁고, 허리나 무릎, 발목 등의 관절이 무겁게 느껴지며 심할 때는 통증이 느껴질 수도 있다.

또 소화 불량과 하복부 불쾌감이 있고, 심하면 설사를 하기도 한다. 이미 만성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면역 기능이 떨어져 있는 상태이므로 냉방병의 영향이 더 심할 수 있다. 냉방병 증상이 있는 경우 몸을 따뜻하게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기고

새로운 대학 평가지표, 이제는 DE&I 준비할 때



김재국 전남대 공과대학 교수

경에 관계없이 모든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역거점국립대학이 DE&I를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도 필수적이다.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지역 주민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포용적인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사회와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지역거점국립대학도 DE&I를 도입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첫째, 대학 정책과 제도에 DE&I 원칙을 반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 DE&I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학생 모집과 교직원 채용에서 다양성을 고려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DE&I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구성원이 DE&I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사회와의 협력은 대학이 지역 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중요한 요소다. 대학은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포용적이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학 정책과 제도에 DE&I 원칙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 내 DE&I 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정책에 반영하는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학생 모집과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다양성을 고려한 절차를 마련해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다양한 인재를 선발해야 한다.

DE&I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노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DE&I는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제는 DE&I를 통해 대학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구성원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대학은 다양한 배경의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공정하고 포용적인 환경에서 학습하고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이를 통해 사회 전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DE&I를 대학 연구와 교육 방식에 적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커리큘럼에 다양성과 포용성을 주제로 한 강의를 포함시켜 학생들이 이러한 개념을 학습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연구팀 구성 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연구자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관점이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학생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다른 학생들이 동등한 학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DE&I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대학 평가지표는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 요소다. 대학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글로벌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無等鼓

김민기

오래된 레코드판을 10여 년만에 꺼내 보았다. 그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날이었다. 보랏빛 앨범 표지에 실린 글을 읽었다. "그의 노래 속엔 대체로 쿨대 높고 좆대 있는 '젊은 한국'이 도사리고 있다. 스튜디오 밖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기타아로 조용히 클래식 소품을 연주해 보던 그의 모습이 생각난다. 그의 일상 생활은 그의 음악에 미화되거나 위장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소박하고 순수하게 구현돼 있다." 1971년 경음악 평론가 최경식이 쓴 글이다.

왔다 사실을 알았다. 김민기는 그런 사람이었기에 언제나 '낮은 곳'으로 눈을 돌렸을 것이다. "사람들은 손을 들어 가리키지/높고 뽀족한 봉우리만을 골라서/내가 전에 올라가 보았던/작은 봉우리 얘기 해줄까" 나직한 독백으로 시작하는 '봉우리'는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때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촌을 떠나 집으로 돌아간 이들을 위한 그의 음악에 미화되거나 위장됨이 없이 있는 그대로 소박하고 순수하게 구현돼 있다." 1971년 경음악 평론가 최경식이 쓴 글이다.

1987년 재발매된 '김민기 1집'은 많은 이들이 소장하고 있을 터다. 열마 전 지인의 북카페에서도 이 음반을 들으며 그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양희은 목소리로 익숙했던 '아침이슬'을 그의 굵직한 저음으로 들었을 때의 충격이 생생하다. 친구를 애도하며 만든 '친구'와 한대수 곡 '바람과 나'도 좋아하는 곡이었다. 그가 학전에서 공연한 '지하철 1호선'은 젊은 날 '내 인생의 작품'이기도 했다. 시대의 아이콘 김민기. 기사를 통해 그가 배우와 가수를 '알것'으로 부르며 자신을 '뒀것'으로 칭하며 묵묵히 그들을 지켜

"어두운 비 내려오면 처마 밑에 한 아이 울고 서서/네 그 맑은 눈에는 빗물 고이면/ 음- 아름마 전 지인의 북카페에서도 이 음반을 들으며 그에 대해 이야기했었다. 양희은 목소리로 익숙했던 '아침이슬'을 그의 굵직한 저음으로 들었을 때의 충격이 생생하다. 친구를 애도하며 만든 '친구'와 한대수 곡 '바람과 나'도 좋아하는 곡이었다. 그가 학전에서 공연한 '지하철 1호선'은 젊은 날 '내 인생의 작품'이기도 했다. 시대의 아이콘 김민기. 기사를 통해 그가 배우와 가수를 '알것'으로 부르며 자신을 '뒀것'으로 칭하며 묵묵히 그들을 지켜

다운 그이는 사람이어려" 어제 영결식에 서주연된 '아름다운 사람'을 들으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 받았던가. "고맙습니다" 말을 남기고 떠난 그는 자신의 이름으로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 했으나,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 온 지인의 마음처럼 그와 그의 노래를 기억하는 일들이 이어지길 바라는 게 모두의 마음 아닐까. 그는 진정 '아름다운 사람'이었기에. /김미은 여론매체부장 mekim@

Table with 2 columns: English and Korean text for Kwangju Ilbo contact and subscription information.